

## 한국계 머리 “프로풋볼 최고의 쿼터백 되겠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풋볼은 본고장인 미국에서 프로풋볼(NFL)에 버금가는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이다. 이런 미 대학풋볼에서 지난해 키 180cm에도 못 미치는 단신 쿼터백이 파란을 일으켰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카일러 머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머리는 작은 체구에도 빠른 발과 강한 어깨로 14경기에서 4361야드, 42개의 터치다운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올리며 소속팀인 오클라호마대학을 대학 최정상급으로 이끌었고, 이 성과로 시즌 후 최고 선수에게 수여하는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연히 졸업 후 NFL 선수로서의 기대치도 확 올라갔다. 머리는 내년도 NFL 신인드래프트에서 최상위권 지명까지 거론될 정도다.

더 놀라운 것은 머리가 풋볼이 아닌 메이저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이미 최상위권으로 지명을 받았던 선수라는 것. 그는 지난해 6월 메이저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된 1,200여명 중 9번째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낙점을 받았다. 오클랜드 구단은 오클라

라호마대 중견수로 51경기에서 타율 0.296, 출루율 0.398, 10홈런, 47타점, 10도루를 거둔 머리에 466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금까지 선뜻 안겼다.

이 같은 스포츠 천재의 진로에 당연히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머리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선수라 그의 진로는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결국, 머리의 결정은 NFL이었다. 그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 인생과 시간을 NFL 쿼터백이 되는데 확고하고 완전하게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풋볼은 내 사랑이자 열정이었다. 나는 쿼터백으로 자라왔고, 리그에서 가능한 최고의 쿼터백이 되고 우승을 이끌기 위해 내 전부를 바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야구를 포기함에 따라 오클랜드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 당초 머리가 야구를 계속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였던 오클랜드 구단도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메이저리그 저령화 추세

메이저리거였던 홀리오 프랑코는 1982년 리그에 데뷔해 2007년까지 뛰었다. 은퇴 당시 프랑코의 나이는 마흔아홉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프랑코 같은 선수를 보기는 어렵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학기술, 트레이닝 기법 등이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정년’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스포츠 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최신호에서 메이저리그의 정년을 ‘33세’로 분석했다.

SI의 분석에 따르면 2018시즌 메이저리그에서 33세 이상으로 125경기 이상 선발 출전한 야수는 겨우 9명이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외야수 닉 마카키스(36·애틀랜타)와 1루수 조이 보토(36·신시내티)가 전부다.

‘스테로이드의 시대’로 평가받는 2002년에는 125경기 이상 선발 출전한 33세 이상 야수가 34명이나 됐다. 125경기 선발 출전은 ‘주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2018년 33세 이상 주전 야수는 겨우 9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2년에 비해 74%나 줄어들었다.

‘주전’이 아니더라도 33세 이상 선수의 출전 기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6년에 비해 33세 이상 선수의 경기 출전 숫자는 58% 감소했다. 대신 젊은 선수들의 출전이 늘었다. 25세 이하 선수들의 경기 출전 수는 2006년에 비해 21% 늘었다.

메이저리그가 빠르게 ‘저령화’ 되는 이유로는 도핑 테스트 강화, 투수들의 구속 증가, 데이터 분석 강화 등이 꼽힌다. 2002년에는 금지약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했고, 이를 통해 많은 나이에 들어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메이저리그는 2003년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운동능력 강화제를 금지시켰다.

투수들의 공이 빨라진 것도 정년 단축의 이유다.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필요한데, 베테랑들에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25세 이하 선수들의 부족한 경험은 강화된 데이터 분석으로 채울 수 있다. 분석이 강화되면서 구단들은 점점 더 어린 선수들을 선호하게 됐다.

## 우즈, 한국말로 “좋아요! 최고예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브리지스톤 골프볼 광고 영상에서 한국어로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광고에는 우즈 외에도 브라이슨 디셔보, 맷 쿠처, 프레드 커플스 등이 출연해 한국어로 인사를 전했다.

브리지스톤골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우즈는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한국어를 구사하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다. ‘필드의 신사’ 로도 유명한 커플스는 영상 말미에 역시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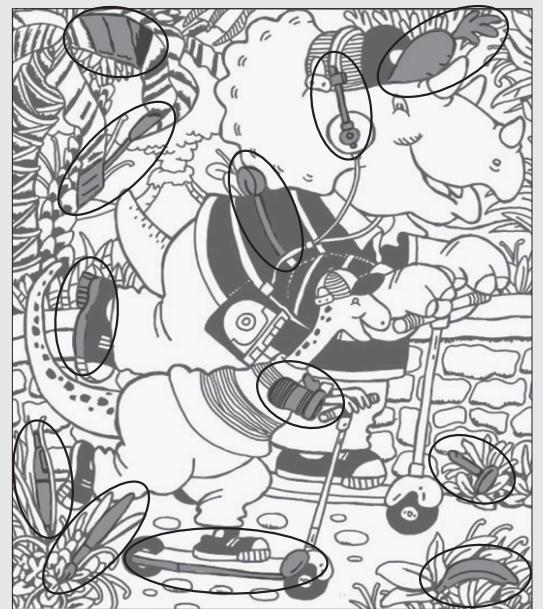
브리지스톤골프 한국 수입을 총괄하는 업체는 “브리지스톤골프 일본 본사와 미국 지사, 선수 에이전트 회사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이 이벤트를 성사시켰다.”고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한국어로 광고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광고에 출연한 선수들 가운데 우즈와 커플스는 올해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스컵에 미국 대표팀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박성현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함께 촬영한 테일러메이드 광고에도 한국어가 등장한다.

이 광고에서 박성현은 한국어, 우즈는 영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때 박성현이 구사한 한국어는 그대로 전 세계 방송으로 전파를 타며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박성현의 위상이 증명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

